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 영광의 얼굴들

피아노

심사평·심사위원장 주영목 수원대 음악대학원장 교수

심사위원- 신민자 교수, 한기정 교수, 엄의경 교수, 김대현 교수
초등부는 전체적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손가락의 테크닉은 우수했다. 자기의 소리를 들으며 음악을 만들어가는 즉,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이 눈에 띄었다. 탄탄한 기교와 음악적 능력 또한 훌륭하였다. 호흡이나 터치, 다양한 악기로 익히면 매우 훌륭한 연주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성숙한 음악가로 성장하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중등부는 상상력을 좀더 키워 나가면서 터치 개발에 힘쓸 시기라고 본다. 기교는 물론이고 음악적으로 각자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다양한 색채의 소리를 구사할 줄 아는 연주자가 되길 바란다.

고등부는 전반적으로 작곡가와 곡의 백그라운드 등의 지식을 넓혀 좀더 폭넓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시에 맞춰 준비된 곡이 많은데 오랫동안 신선한 느낌과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에 이점 유념해서 준비하길 바란다.

대학일반부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가졌고 그것을 연주로 표현하는 뛰어난 기량을 가진 연주자가 많았다. 앞으로 세계적인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기술적인 면과 내적·지적인 면의 성장에 더욱 주력해주시길 바란다.

권진영 (초등 저학년부 공동1위·개일초등학교)

이번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에서 최선을 다해 쇼팽 즉흥 환상곡을 연주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늘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선생님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도겸 (초등 저학년부 공동1위·원명초등학교)

본선곡은 3학년인 제가 연주하긴 어려워서 걱정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스럽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늘 새로운 곡에 도전하며 나만의 음악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칭찬과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나영 (초등 고학년부 1위·압구정초등학교)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콩쿠르는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매우 즐거운 시간입니다. 콩쿠르 무대 위에서 피아노 치는 시간이 긴장도 되지만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저에게 의미있는 1등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해서 좋은 연주를 보여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허진슬 (고등부 1위·부산예술고등학교)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부족한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콩쿠르 당일에 앞순서를 뽑아 떨어졌지만 자신 있게 연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이번 콩쿠르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더 큰 무대에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홍승우 (대학일반부 공동1위·연세대학교)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음악가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콩쿠르로 인해 1등이라는 결과를 떠나서 좋은 피아니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보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음악가의 꿈을 품고 더 노력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임현진 (대학일반부 공동1위·한국예술종합대학교)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콩쿠르가 자유곡이라 나만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으로 정했지만 테크닉을 중요시하는 곡이 아니라서 남과 비교될까 걱정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콩쿠르를 경험삼아 다른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플루트

심사평·심사위원장 김동수 성신여대 교수

심사위원- 조인영 교수, 송여진 교수, 이승호 교수, 라경숙 교수
초등부 저학년은 전체적으로 소리, 리듬, 테크닉이 우수했고 고학년부는 비슷한 실력을 보였다. 중등부는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학생이 있었다. 고등부는 전반적으로 높은 기량을 뽐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학생이 많았다. 대학일반부는 고등부에 비해 다소 아쉬움이 많은 연주였다. 소리 부분도 많은 차이가 없었다. 더욱 분발했으면 한다.



정서운 (초등 저학년부 공동1위·낙민초등학교)

먼저 좋은 결과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늘 좋은 가르침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과 뒤에서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본기에 충실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플루트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현 (초등 저학년부 공동1위·부곡초등학교)

피아노를 배우다가 다른 악기도 한번 배워볼까 고민하다가 어머니 말씀에 새롭게 빠져든 것이 소리가 너무 예쁜 플루트입니다. 이번 콩쿠르 예선에서 만족을 못했는데, 본선에서는 연습한 그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와 정말 기쁩니다. 더 노력해서 음악을 통해 많은 이에게 따뜻하고 기쁨을 주는 플루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임정우 (초등 고학년부 공동1위·소화초등학교)

예중을 준비하면서 중간점검하는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이렇게 1등을 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많은 음악을 듣고 보고 연주하며 실력을 키워 나의 음악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음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를 가르쳐주시고, 따뜻한 마음 느낄 수 있게 대해 주시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부모님 고맙습니다.



정수비 (중등부 1위·선화예술중학교)

작년에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에서 1등을 한 후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어 다시 한번 같은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불쌍히 여기고 지켜주신 하나님과 많이 부족한 저를 이만큼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해주신 선생님,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입니다.



김수현 (고등부 공동1위·서울예술고등학교)

초등 3학년 때 언니들의 연주 소리를 듣고 단숨에 반해 버린 것이 플루트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플루트를 연습하게 됐는데 벌써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이런 상을 받고 보니 너무 보람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저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양하영 (고등부 공동1위·서울예술고등학교)

짧은 시간 안에 곡을 완성해야 하는 압박을 받던 저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충고를 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께 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곡이 주어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준비가 된 연주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악

심사평·심사위원장 김관동 연세대 교수

심사위원- 박순복 교수, 정종근 교수, 최상호 교수, 김수민 교수
초등부 경연은 새로 신설된 만큼 많은 뜨거운 경연을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참가자가 많았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음, 가사, 리듬, 음정 등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한 참가자도 보였다. 좀더 깊은 호흡을 하고 장시간을 여유있게 정확히 하면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악보에 충실한 모습이 좋지만, 느낌을 더 가졌으면 한다. 중등부는 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목을 막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목에 힘을 빼고 가사를 정확히 했으면 한다. 주어진 박자대로 노래 했으면 한다. 무리하게 소리를 끌어올리지 않았으면 한다.



고등부는 음색은 좋았지만 코가 막힌 느낌이었고, 가사 전달이 좀 미흡했다. 가능성은 있으니 음정과 호흡도 좀 보완하길 바란다. 목에 무리한 힘을 주어 고음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좀더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대학일반부는 참가자가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김준형 (성악남자 초등 고 1위·서울 성일초등학교)

예중 시험을 앞두고 나온 콩쿠르에서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무 기쁩니다. 이런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목표한 학교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 제 노래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김정인 (성악여자 초등 고 1위·서울 양진초등학교)

꼬마 때부터 유독 노래를 좋아했던 제 꿈은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과 시원한 감정 정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성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지도선생님 그리고 수상의 영광을 주신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에도 감사드립니다.



전소연 (성악여자 중등부 1위·선화예술학교)

노래가 좋아서 하게 된 교회 찬양팀을 시작으로 노래는 나의 길이 많은 인생과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차근차근 채워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헌신하시고 기도해주시는 부모님, 가장 좋은 음악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예준 (성악남자 중등부 1위·선화예술학교)

성악을 전공한 어머니로 인해 점점 노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중학교 1학년이 선배들과 경쟁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고, 준비한 것에 최선을 다하지는 마음으로 편히 부른 것이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멋진 성악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상혁 (성악여자 고등부 저 1위·서울예술고등학교)


무대에서면 늘 조심스럽던 제가 이번 콩쿠르에서는 내 노래를 들려주어야겠다고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콩쿠르 수상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과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오래 기억되는 멋진 소프라노가 되고 싶습니다.



조은일 (성악여자 고등부 고 1위·서울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제게 열정과 사랑으로 큰 가르침을 선생님과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곡 준비를 하면서 가사 뜻 하나하나 찾아가며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니 곡의 분위기가 훨씬 좋았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 섬세하고 깔끔함이 더해지는 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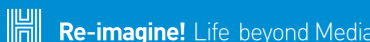
심야식당

深夜食堂



남자 혼자 운영하는 신주구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 모두가 사라진 밤 12시 식당이 문을 연다. 간판이라고는 그저 '밥 집' 이란 두 글자. 사람들은 그곳을 '심야식당' 이라 부른다. 정해진 메뉴는 없지만 손님이 주문하면 가능한 만들어주는 주인아저씨 그는 사람들의 주문 배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채워준다!

수요일 오후 2시 | 밤 12시
900만 시청가구의 국내 대표 여성채널 채널동아 | www.donggatv.net



www.heraldcorp.com